

미래대학의 변화*

김철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대학의 기능

고대 이래 대학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교수, 연구, 봉사의 세 가지 기능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진리탐구, 학문과 자유 추구에 매몰되어 폐쇄적이었던 대학도 이제는 사회변화에 참여, 주도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이제 대학 교육은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특정시간의 직업을 위한 반복적 훈련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과 직업변동을 전제로 학습과 자기실현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능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대학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개념, 목적, 내용, 방법, 구조 등이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날 대학은 그 간의 전통적 교육체제, 형식성에서 탈피하고, 고유의 활동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 체제 내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즉,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고립되어 엘리트 집단을 양성, 충원하는 구조와 기능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정보화, 개방화, 저출산·고령화, 고등교육의 보편화·대중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 추세는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대학으로 나아갈 방향과 세부 방안을 짚어본다.

2. 대학의 현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짧은 시간 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대학교육이 담당했던 지식기술 교육과 양질의 인력양성·공급으로 인해 가능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학문의 다양성 부족, 학문 분야별 권위주의, 학력과 학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시스템, 대학의 서열화, 입시 경쟁 및 사교육의 과열, 낮은 교육복지 수준, 교육지원의 지역, 계층 간 불균형 등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은 학령기 위주의 연령별 교육 체제이며, 산업사회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학은 양적 풍요와 질적 빈곤을 공유하고 있으며, 반복식,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창의력과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과 선택, 자율과 책무 등에 기반한 변화와 개선 가능성이 매우 큰 장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중등교육과의 연계(교사당, 학급당 학생 수 및 학교, 학급 수 규모 조정),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학계, 산업계와 연계한 원활한 수급구조 형성(청년실업, 수련불일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부족 등), 교육시설 복합화, 대학의 기능별 분화(특성화, 역할분담), 입학자원 다변화에 따른 대응, 평생학습 체제 강화(중고령자, 노인 인적자원개발), 학교와 직업세계 간 연계 원활화,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고용, 평생복지와 연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원천기술, 지식의 많은 부분은 대학교육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학교급별, 유형별 구분 기준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산업, 직업, 고용 구조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또한 지식기술정보의 급속한 발전은 학사관리를 비롯하여 기존의 대학 관리운영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글로벌화에 따른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교수, 학생, 학교 간의 국제교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학령인구 변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재교육, 사회교육 부문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국내 학생들의 유학 과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대학 진학 등 인력 이동이 빈번해지고, 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대학만큼 풍부한 교육자원을 확보한 기관이 없으며, 대학의 사회교육(전일제 정규 학생 외 성인, 직장인 대상) 부문의 확대 또한 예상되므로 양적 변화 못지않은 질적 변화도 나타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사회경제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노동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개편요구가 증대할 것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규모 변화와 질적 내실화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대학 운영의 효율성, 질적 수월성 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구 분	현재의 고등교육	미래의 고등교육
체제	Formal(형식적)	Semi-formal / Non-formal
비용	Expensive	Affordable
시간제	고정시간제(4~6년의 Full-time)	유연시간제
진로지도	학제 안 폐쇄적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자료 : World Bank(2003), Lifelong learning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표1 _ 고등교육의 현재와 미래]

3. 미래 대학으로의 변화

미래의 대학은 지구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분명한 설립 및 존재 목적을 지닌 대학,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 다양한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ICT 등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실험실습) 개선, 국제화(네트워크), 교수·학생 간 자유로운 교류 등 다양한 방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대학으로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 명확화와 고등교육의 효율성 확보, 교육의 질 담보 및 향상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생산동력 유지 위한 잠재인력 발굴 및 개발 활용(여성, 고령자, 비경 그룹)을 위한 대학의 역할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와 명확한 범위, 기준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시장을 고려할 때 두 주체 간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미래 유망·전략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은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담당하며, 전문능력과 자질 중에서 기초부문은 국가가 지원·담당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학은 민간부문(사립대학)이 소홀한 인문분야와 미래 유망·전략산업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 개혁을 통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도, 문화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도 공히 당면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및 성인학생 비중 증가, 평생 직업능력개발 필요성 증대 등에 기인하며, 대학교육의 보편화, 다양화 등을 주요 개혁방향으로 잡고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은 대학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의 고도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거점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기능별 대학의 전문화·특성화, 취업 및 평생교육 중심의 Community College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 형	사 례
체제 변화	- 새로운 유형의 대학, 대학원 제도 도입 운영 - 연합대학 체제 및 직업교육 중심대학 도입
기회 확대	- 평생교육 확대 및 ICT, e-Learning 증가 -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 연구투자 확대	- 재정지원 강화, 장학금 및 시설투자 확대
산학협력 강화	- 산학협력 지원 확대(지원체제 효율화) -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질적 수준 제고	- 대학 평가(실적 연계) - 우수교원 확보, 진로지도 및 상담서비스 강화
국제화	- 학점 교환제, 공동 학위제 - 우수인재 유치

[표2 _ 대학교육 변화 유형]

대학이라는 생물체, 대학교육 체제라는 생태계는 변화하는 환경과 더불어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요구한다. 국·공립대학 법인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등은 정부개입과 더불어 시장자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점을 제공하지만 결국은 정책이나 제도의 주체가 대학이라는 점에서 대학 스스로가 선택과 결정,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자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최적의 양적, 질적 수준에 도달하려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4. 미래대학의 모습

대학은 국가경제, 사회발전은 물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핵심주체이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의 대학은 개방화(Openness), 다양화(Diversification), 전문화

(Specialization), 자율화(Autonomy)를 추구해야 한다. 미래 대학은 건학정신, 교육이념 등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설립목적, 기능에 철저히 부합하는 대학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대학의 교육이념은 종교정신, 애국심·충성심, 정의 실현, 사랑 실천, 창의성 등의 비중이 높고, 특수목적대학의 경우, 전문 직업인 양성, 산학협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의 대학은 자유롭게 입학, 졸업, 재입학이 가능한 유연한 고등교육 구조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융복합 학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산업계와의 유기적 연계, 연구 교수 활동의 자율성 보장, 선택의 자유, 학교유형의 다양화(시장에 대한 분명한 신호기제 확보 및 시그널링) 등 대학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지리적 공간개념이 사라지고, 학과·전공 간 벽이 허물어지며, 정형화된 교육

기간(학문, 전공, 직무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 기간이 상이한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변화하는 등 대학의 외적, 내적 모습이 크게 바뀔 것이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집행,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업(사업주단체), 정부(지자체), 노동조합 등 공동참여기구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대학 설립·정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대학이 시장기능에 따라 규모와 질이 결정되고, M&A 자율화, 대외 개방, 정보공개 등에 따라 수요자들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다.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통한 고등교육의 다양화, 경쟁력 강화 촉진이 예상된다. 교육의 질적 수준과 순수성, 교수의 권한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세금부과,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기업 경영방식, 이윤추구, 지식응용 및 기술발전,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산출(만족도, 졸업률, 취업률 등) 중시, 고객 중심 등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사립 지배구조 개선(총장 선임제도, 회계제도 등), 산학협력체제 강화(정확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분석, 현장 밀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도 해묵은 주제이지만 하나 개선을 거듭하여 제도적으로 안착될 것이다. 대학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대학은 경쟁상대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이 될 것이다. 졸업생의 취업 처 또한 전 세계 기업이므로 대

학의 교육과정, 영어강의(학문적, 기능적 필요에 의한 다양한 언어), 논문 게재 등 모든 평가 척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일정한 준거(틀)를 가질 것이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지속될 것이다. 대학의 역할 분담 및 교육과정 특성화(직업준비교육과 진학교육의 분리)가 분명해 질 것이며, 대학교육의 표준화, 국제통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질 관리 체제가 도입되어 대학의 글로벌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 성적, 대학별 전형자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선발도 수시모집, 모집단위 광역화(모집 시기 및 전형 자료 다양화, 수시모집 증가) 등 다양화 될 것 이나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는 학력에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기존의 고착화된 서열이 타파 될 것이며, 창조적 혁신 대학(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학문간 융복합)이 선호되고, 외국대학과의 복수 학위제, 핵심교수 확대, 산업기술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융복합 분야 등이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지식의 기본인 인성 및 기초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즉, 취업중심의 진로지도에서 탈피하여 진로상담, 카운슬링, 심리치료 등 강화 등 학생 지원 및 관리 기능이 개선될 것이다.

대학, 학과별 특성에 맞는 대학, 학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방식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

춤형 인재 양성이 체계화 될 것이며, 학생들과 학과 창의성과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권이 강화(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학교육의 지향점이 명확해져 다양성에 기반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크 한 동기부여가 명확한 자발적, 창의성 교육계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의 교육철 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의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차원의 열린 / 자유로운 대학 • 특성화, 전문화, 다양화, 대학 • 글로벌 시대의 지식정보 개발 / 소통의 중추 	
미래 변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구조 재설정(수평-수직적 연계) • 기능 명확화(연구, 교육, 기술(취업)) • 사회참여 확대(평생, 성인교육) • 국내외 호환성, 통용성(상호인정) 	
대학	산업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혁(대외부) • 대학교육 수요자 연계협력 • 학과프로그램 개편 • 진로지도상담 강화 • 학사운영 거버넌스 개선 • 정보제공시장기제 작동 • 영리추구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산학수요 반영 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 강화 • 지역파트너십 구축 (노사정 협력 포함) • 맞춤형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 시스템 효율화 및 강화 • 적절한개입과 지원 • 주체간 협력지원 (인프라, 외부효과) • 국가 차원의 대학 지원 시스템
변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 초월(대학교육 접근성) • 글로벌화 및 대학 / 주체간 유기적 연계 • 교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양화 • 대학의 역할 / 기능 재정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 대학교육수요 다양화 요구 증대 • 고등교육 질적 내실화 미흡 	

[그림1] 미래대학으로의 이해 배경 및 과정

필자소개

김철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교육원 교육행정원,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등을 거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심의평가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